

어~ 익숙한 이 목소리는?

인기 연예인 애니 더빙 봄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은 기존 동화를 비튼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캐릭터와 딱 맞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보는 재미도 그만이다. 약간은 거만한 듯 사랑스러운 피오나 공주 역의 카메론 디아즈나 절세 없이 떠들어 대는 떼벌이 당나귀 동기 역을 맡은 에디 머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최근 극장가에 걸리는 한국 애니메이션에도 인기 연예인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고 있다. 또 일부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원어판 보다 한국어 더빙판을 더 많이 극장에 거는 등 '목소리 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개봉된 판타지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이하 천년여우)에는 손예진·공형진·류덕환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미호'를 소재로 만든 '천년여우'는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뮤직풀러리기 구미호 소녀 여우비가 소년 황금이와 만나면서 겪

'천년여우' '아치와 시팍' 등 손예진·류승범·보아 참여

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물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여우비' 역을 맡은 손예진은 목소리 연기가 처음이었지만 때론 터프하고 때론 양증맞게 재현해 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서게 손예진 목소리 맞나' 싶을 정도로 색 다른 연기를 펼쳐 재미를 준다.

그밖에 남자 주인공 황금이 역은 '웰컴 투 동막골' '천하장사 마돈나' 등에 출연한 류덕환이 맡았으며 두 사람을 보살펴주는 강선생 역은 공형진이 연기했다.

'천년 여우'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마리아상'으로 대상을 받은 이성강 감독의 작품으로 제일교포 음악가 양방언이 영화음악을 맡아 환상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아치와 시팍'은 영화 흥행과는 별도로 배우의 이미지와 맡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제목에서 풍기듯 지극히 불량스러운 18세 관람가 영화였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치와 씨丐의 역할은 류승범과 임창정이 맡았으며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띠는 이쁜이 역으로는 현영이 출연했다.

외국 애니메이션은 최근 점점 한국어 더빙판을 들리는 추세다. 특히 충무로 최고 연기파 배우로 꼽히는 송강호가 출연했던 '마다가스카'의 성공



'여우비'

이후 스타들의 애니 더빙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 외국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헷지'의 브루스 윌리스 '플러쉬'이 휴잭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 연기인기를 모고 있다.

**외국 애니 한국어 더빙판 대세
호감 불구 연기력 저하 지적**

100% 더빙판을 극장에 걸어 흥행에 성공한 '빨간 모자'의 진실에는 캐릭터와 어울리는 빨간모자 역의 강혜정을 비롯, 김수미·노홍철·임하룡 등이 호흡을 맞췄고 '플러쉬'에는 아예 영화 '투사부일체'의 주인공인 정준호·정웅인·김상경·정운택이 단체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밖에 배우 황정민과 신동엽·보아는 '헷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SS501과 임제무는 '파이스토리'에 출연했다.

스타들의 목소리 연기는 관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출연자들은 전문 성우들에 비해 연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흥행 위주가 아닌, 캐릭터에 적합한 목소리의 스타를 기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러브 메이커'

스페인 영화로의 초대

2월2일~5일까지 광주극장서 '스페인 영화제'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스페인 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 '영화로 세상보기'는 2월2일~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스페인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스페인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후안 안토니오 바르뎀의 작품 가운데 장난스럽게 시작한 사랑의 아픈 결말을 그린 '러브 메이커'와 네덜란드 화가 베르베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화면 속에 아버지의 여자를 찾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빅토르에리세 감독의 '남쪽'이 상영된다.

또 부르주아와 종교의 위선을 비판해온 투이스 브륄엘 감독의 '절멸의 천국'과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프라시스코 고양의 전기 영화인 카를로스 사우라의 '보르도의 고양'이 관객들을 만난다.

관람료는 1편 6천원, 전편 관람 2만원이며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휘황찬란 궁 금빛 의상 볼거리

주목! 이 영화

황후花

'영웅' '연인'에 이어 장이모 감독이 또 다시 메가폰을 잡은 무협물로 할리우드까지 장악한 배우 공리가 자신을 발탁했던 장이모와 11년만에 다시 손잡은 작품이다.

중국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을 들인 '황후花'는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궁의 모습과 수만 개의 노란 국화꽃으로 메워진 황실 앞마당, 황제와 황후의 금빛 찬란한 의복, 금빛 갑옷의 반란군과 은빛 갑옷의 황실군대 등 화려한 볼거리가 화면을 압도한다.

황제 일족의 권력 싸움과 함께 전처의 소생인 큰아들과 온밀하게 정을 통하는 황후 등 황실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까지 그리고 있으며 주연 배우들 사이에 함께 호흡을 맞춘다.

중국 당나라 말기, 황제는 중앙집 축제를 앞두고 변방에 있던 둘째 아들 원결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황제와 황후, 그리고 세 왕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마침내 대가운 중앙집, 웅장한 축제 분위기 속에 국화를 가슴에 새긴 10만 대군이 군을 향해 돌진하는데...<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상영극장
황후花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미스포티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로보트 태권V	롯데(광주·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미파도 2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하브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미녀는 괴로워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최강 로맨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마스 제일,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하미
에리곤	롯데(광주·첨단),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티박스
블러드 데이아몬드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스티박스, 하미, 프리마스 제일
박물관이 살이었다	롯데(첨단),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디자뷰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스티박스, 하미, 프리마스 제일
데스노트-리스트 네임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스티박스

회립된 디지털 신문은 광주신문 대행합니다. 광주신문은 광주신문 대행입니다.

高유가 시대 걱정!! 끝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한국인수
글래피아식

아외 결혼식 가능
관광버스음식 대절

(062) 262-2278